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8년 2월 13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 13.(화)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2. 12.(월)	담당부서	수출입과
담당과장	이원희 과장(044-203-4040)	담 당 자	정민규 사무관(044-203-4041)

2월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해 정책역량 집중

- 2월 조업일수 감소(△2.5일), 수입규제 등 하방리스크 선제 대응 -
- ❶수출 마케팅 조기 추진, ❷무역보험 확대 지원, ❸현장애로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는 2.13.(화)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부 대회의실에서 **김영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 및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하여, **2월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업종별 수출진작 방안** 등을 논의했다.

* 반도체협회, 자동차협회, 자동차협동조합, 조선협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석유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디스플레이협회

□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올해 **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해 **지난해에 이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2월에는 대내외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다.**"라고 우려했다.

○ 주요 **수출 하방요인**으로는 우선,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2.5일 감소**와, **중국 춘절 연휴**(2.15~21일), **기저효과**('17.2월 수출, +20.2%)가 있다.

○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입규제 조치 확대** 및 **미국·중국간 무역갈등 심화**도 우리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한편,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도 **미국 국채금리 및 리보**(Libor) **급등**, **주요국 주가 상승** 등으로 **다소 과열**되면서, 국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도 **동시에 확대되는 추세**다.

□ 이번 수출점검회의에서 **주요 업종별 협·단체** 역시 **2월 수출 증가세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특히, 13대 주력품목 중 **조업일수 영향이 큰 자동차·차부품·일반기계·섬유**를 비롯해, **해외생산 비중이 확대**되는 **무선통신기기·가전**의 수출 **감소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 이에 **김 실장**은 "**정부와 수출 지원기관, 업계**가 **다 같이 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업종별로 **수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수출 저해요인**을 **최대한 사전에 조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정부**도 **수출 하방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

○ **첫째, 수출 마케팅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투입**한다.

- 특히, **수출 둔화가 예상되는 2월**에는 **의료기기·2차전지·소비재** 등 **총 19회의 국내 및 해외전시회 참여와 구매자(바이어) 발굴**을 적극 지원해, **수출 상담**이 **실제 계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수출마케팅 지원예산 : ('17) 1,476억 원 / 17,000개사 → ('18) 1,559억 원 / 18,000개사

- 이와 함께, **고위급 해외순방과 연계**하여 상담회·세미나 등 **신흥국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신남방정책 지역** 중심으로 **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할 계획이다.

  * 한·베 산업협력 플라자(2.2), 한-우즈베키스탄 경제사절단(2.12~13), 한-인도·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파트너십(2.25~3.2) 등

  **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1분기 중 무역사절단 33회 파견

○ **둘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지원실적 48조원)보다 1조원 확대된 **총 49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하여 기업들의 **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 **셋째**, 무역실무부터 수출계약·이행까지 **수출 모든 과정에 대한 밀착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연간 5천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수출에 성공한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중단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 아울러, **한류 활용 소비재 마케팅, 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재·서비스 분야 **신규 유망 아이템 육성**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정민규 사무관(☎ 044-203-40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